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9.전나무숲과 월정사

오대산의 아홉 번째 이야기

전나무숲과 월정사

전나무숲 소개

오대산 전나무숲은 광릉 전나무 숲, 내소사 전나무 숲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 중의 하나로, 천년의 숲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부분 수령 200년, 높이 25m가 넘는 1,700여 그루의 아름드리 전나무들이 마치 대나무처럼 곧고 빽빽하게 하늘로 솟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나무 숲길은 과거에는 모래로 포장해 도로로 이용하던 길이었으나 2000년대 포장을 걷어 내고 지금의 황톳길로 복원되어 맨발로 걷기에 좋은 명품 숲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대산 전나무숲길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여 2011년 '제1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나무숲에서 즐기는 산림욕

산림욕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코스를 돌며 적당한 운동을 반복하는 동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숲에서 사색이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정적인 방법입니다. 산림욕은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그중에서도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가 많은 곳에서의 산림욕은 효과가 좋습니다. 나무가 병해충과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전나무숲 탐방로

월정사 앞 금강연에서 남쪽으로 일주문까지 이어진 전나무숲길(0.9㎞)과 순환탐방로(1㎞)를 연결하는 총 1.9㎞의 숲길로,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일주문

절의 입구이자 절에 들어서면서 처음 만나는 문으로 모든 중생이 자유롭게 드나들라는 의미에서 문을 달지 않고 기둥을 양쪽에 하나씩 일직선으로 세워 일주문이라고 불립니다.
일주문에 걸려 있는 월정대가람(月精大伽藍) 현판은 탄허스님의 친필 입니다.



전나무숲 입구 일주문

성황각

성황각은 마을을 지켜주는 토속신을 모신 건물로 마을의 평안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믿고 섬기던 토속신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여 신라시대 불교가 정착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면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전나무숲 내 위치한 성황각

오대동문



오대동문 각인

오대로 들어서는 길목이라 는 의미로 오대산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주문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허훈의 유람기인 「동유록(東遊錄)」에 "…오대동문에 도달했는데, 높은 전나무들 이 길 옆으로 있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강연

금강연은 오대천 계곡 중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금강산 이후로 경치 좋은 곳에는 '금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금강연 역시 이에 따른 것입니다. 금강연 아래에는 '용이 산다'는 전설이 서린 용소(龍沼)가 있습니다.
월정사팔각구층 석탑은 금강연의 용이 나와서 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곳이 매우 신성한 성소(聖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이 용출(湧出)하는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 양자강 최고의 물인 중령천에 비견됩니다. 이곳의 물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김정호의 『청구도』등에서 한강의 근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강연의 여름

전나무숲의 아름다운

생태자원

노랑무늬붓꽃

노랑무늬붓꽃은 강원도, 경상북도 등 중북부 지방의 높은 산간 숲속 또는 풀밭에 자생하는 한국특산식물로 흰색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있어 노랑무늬 붓꽃이라 칭합니다. 오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학명이 *odaesanensis*입니다.



노랑무늬붓꽃

전나무숲에서 4월에서 6월에 볼 수 있으며, 꽃은 꽃대에서 두 송이씩 피어나며 잎은 칼처럼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전나무숲의 전설

나옹스님과 소나무 이야기

전나무숲 설화는 고려말 오대산의 북대에서 수도하던 나옹스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님은 매일 같이 월정사로 내려가 부처님 전에 콩비지를 공양했는데 어느 겨울날, 나옹스님은 비지를 받쳐 들고 조심스레 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락' 소리가 들리면서 소나무 가지 위에 얹혀 있던 눈이 부처님 전에 올릴 비지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스님은
"이놈, 소나무야! 너는 부처님의 진신이 계신 이 산에 살면서 큰 은혜를 입고 있거늘, 어찌 감히 네 마음대로 움직여 불전에 올릴 공양물을 버리게 한단 말이냐."
라며 소나무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마침 이 소리를 들은 된 오대산 산신령이
"소나무야, 너는 큰스님도 몰라보고 부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 산에 살 자격이 없다. 멀리 떠나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나무 아홉 그루로 하여금 이 산의 주인이 되어 오대산을 번창케 하리라."
라는 산신령의 명령에 따라 소나무들은 오대산에서 쫓겨나고 이후 전나무 아홉 그루가 번성해 아홉싸리골이라는 명칭과 함께 지금의 전나무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FSC PRINTED WITH SOY INK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월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로서 강원 남부 60여 사찰을 총괄하는 중심 사찰입니다.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때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월정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그 후 신효거사와 두타승 신의, 유연장로를 거치면서 절의 모양새를 갖추고 차츰 규모가 커졌다가 고려 충렬왕 33년(1377), 조선 순조 33년(1833), 한국전쟁, 이렇게 3번의 화재를 겪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문화재를 잃긴 하였으나 지금의 월정사는 1960년대 탄허스님과 만화스님 이후 현해스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정사 전경

월정사의 명칭 유래

'월정사'라 불리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오대산 동대에 해당하는 만월산의 '월'과 서대 수정암의 '정'자를 합한 것이며, 두 번째 설은 월정사가 달의 형국을 이루고 있고, 동대 만월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월정사의 역사

조선시대

1788년 단원 김홍도는 오대산과 금강산 등을 답사하여 70폭의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금강사군첩』이 그것인데 월정사를 비롯하여, 상원사와 중대 적멸보궁, 오대산사고의 그림을 남겨 18세기 후기 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월정사(금강사군첩)

일제강점기 (1930년대)



불타기 전의 월정사

조선고적도보에 남아있는 월정사의 주요 전각과 전경 사진에서 한국 전쟁 이전의 월정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월정사는 1951년 국군에 의해 칠불보전을 비롯하여 영산전, 광응전 등의 모든 건물이 불타 버렸고, 많은 문화재들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는 석조 유물인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만이 남아있습니다.



불타버린 월정사(월정사 성보박물관)

월정사의

건축물

칠불보전

월정사가 불타기 이전에 이곳에는 칠불보전이 있었습니다. '칠불보전'이란 '일곱 분의 불보살을 모신 전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 후기 승려인 혼원(混元, 1853~1889)의 금강록에 따르면 이곳에는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칠불보전의 모습은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아있습 니다.



불타기 전의 칠불보전

적광전

적광전(寂光殿)은 월정사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전각으로 앞면 5칸의 옆에서 보면 '八'자처럼 보이는 팔작지붕 건물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칠불보전이 있었으나 전소되었고, 1968년 만화스님이 새롭게 중건하였으며, 안에는 경주 석굴암의 불상 형태를 그대로 따른 석가모 니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모신 부처님에 따라 현판의 이름도 정해지는데, 과거에는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탄허스님이 〈〈화엄경〉〉을 중시하고, 오대산 수도원 등에서 주 경전으로 삼아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로 1950년대에 탄허스님이 쓴 적광전이라는 현판으로 고쳐 달았다고 합니다.



월정사 적광전

월정사의

문화재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국보 제48-1호)

국내에 현존하는, 고려 초기의 다각다층 석탑으로,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미술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탑은 8각 모양의 2단 기단 위에 9층 탑신을 올린 뒤 머리장식을 얹어 마무리하였습니다. 탑신부는 석탑이 대체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과 달리 2층 탑신부터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1층 탑신의 4면에 작은 규모의 감실(불상을 모셔두는 방)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덟 곳의 귀퉁이 마다 풍경을 달아 놓았으며 상륜부를 금동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가 되면서 4각형 평면에서 벗어난 다각형의 다각다층 석탑 양식이 주로 북부지방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이 탑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의 보현사 8각13층석탑도 이러한 형식을 띤 탑입니다. 1970년 해체 복원 시 탑의 1층과 5층 옥개석에서 다양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어 성보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팔각구층석탑 (복원 전)



현재의 팔각구층석탑 (복원 후)

석조보살좌상 (국보 제48-2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팔각구층석탑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공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의 보살상으로, '약왕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자세와 알맞은 비례를 갖추고 있고, 보관과 귀걸이, 팔찌, 목걸이 등 장식이 화려하고 섬세합니다. 이는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과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이 같은 형태의 보살상입니다. 이 보살상에 대해 고려 후기 문신 민지가 편찬한 『오대산사적』에는 "탑 앞에 약왕 보살의 석상이 손에 향로를 들고 무릎을 괴고 앉아 있는데, 전해오기를 이 석상은 절 남쪽의 금강연에서 솟아나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석조보살좌상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내 사리장엄구 (보물 제1375호)

1970년에 기울어졌던 팔각구층석탑을 해체 복원할 때 발견된 것으로 모두 9종 12점입니다. 이들 일괄유물은 대체로 10~11세기경에 제작된 유물들이어서 석탑이 건립될 때 함께 넣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유물은 은제도금 여래입상과 청동사리외함을 비롯하여 은제내함, 호리병 모양의 수정사리병, 금동제 사각향갑, 청동거울, 전신사리경 두루마리, 수라향갑주머니, 명주 보자기 등인데, 이것들은 고려시대 초기의 금속공예사의 현황과 불교사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은제도금여래입상



일괄 유물

사라진 비운의 문화재

선림원종

선림원종은 서기 804년 통일 신라 애장왕 때 만든 국보급 범종(梵鐘)입니다. 1948년 양양 선림원지에서 발견된 선림원종은 월정사에 보관되다가 한국전쟁 때 파손되면서 현재 훼손된 종의 일부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종을 거는 고리인 현가쇠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통 일신라시대 범종은 선림원 종이 유일하고 특히 선림 원종의 명문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신라시대 표기법인 '이두'로 쓰여 있어 고대 우리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림원종 (과거)



선림원종 (현재)

참고문헌
(한상길, 2011,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전통, 한국선학회)
(2018,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곳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권혁진 외 1명, 2019, 오대산의 인문학, 도서출판 산책)

제작 담당
자연환경해설사 최승화
감수
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